< 주기도문 3 > "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"

마태복음 6:11-12 하나님 중심의 단순한 삶을 위한 실제적 기도

4. "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"라는 네번째 청원은,

1) **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.**
시편 기자는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이 궁핍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선언합니다(시 37:25). 출애굽한 이백만명 남짓의 이스라엘 민족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로 40년간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(출 16:4).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므로 생계를 위해 염려하지 말라(마 6:25, 28, 31)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.

2) **'일용할 양식'을 구하는 겸손한 간구입니다.**
여기서 '양식'은 음식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.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나 일용할 양식이 확보된 사람이나 모두 매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. 이는 '일용할 양식'이 사람이 수고한 결과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임을 일깨워 줍니다. 이 기도는 내 능력이나 소유로서 내 생명과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(눅 12:15-21)을 인정하고, 하루 하루를 생명과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기도입니다.

3) **자족과 절제하며 이웃과 나누며 살겠다는 서원입니다.**
'오늘'과 '일용할'이라는 어구는, 오늘 지금 여기에서 보통 사람으로 사는데 필수적인 것을 기도하고 그 이상을 탐내지 않는 지혜를 가르칩니다(딤전 6:7-8, 잠 30:8하-9). 사도 바울은, 만나를 더 많이 거둔 자나 충분치 못하게 거둔 자나 결국 균등하게 분배된 사례(출 16:18)를 들어, 자신의 소유로 궁핍한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도울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(고후 8:13-15).

5. “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”라는 다섯번째 청원은,

1) 하나님의 자비로 죄사함 받았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
여기서 ‘죄’는 헬라어로 ‘빚’을 뜻합니다.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빚이 너무 많아서 그 어떤 공로나 선행으로 갚을 길이 없습니다. ‘죄의 빚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즉 인간이 죄 사함을 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의 은혜(엡 1:7)이며, 자비(눅 18:13)와 긍휼(마 18:27)과 사랑(요 3:16)입니다.

2) 하나님께 죄 용서를 요청하는 동시에 이웃의 죄 용서를 서약하는 기도입니다.
이 기도는 “하나님,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.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(죄들)을 용서하겠나이다”라는 뜻입니다. 용서 없는 용서 청원은 헛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, 내 자신이 이미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, 마땅히 내게 빚진 자들도 용서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.

3) 죄 용서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달하고자 결단하는 기도입니다.
예수님께서는 임금에게 막대한 빚을 탕감받았으나 친구의 작은 빚 탕감해 주기를 거부한 종의 비유(18:23-35)로 이 교훈을 강조합니다.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다른 이들에게 무한대의 용서(마 18:21-22)를 베풀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. ‘서로 용서’는 예수님의 새 계명인 “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"(요 13:34)의 구체적 실천입니다.